

# 강진군, 옛 성화대에 기업 유치 '온 힘'...서울서 워크숍

### 전남도 공모 선정 330억원 확보 4차산업혁명 거점 구축 추진 차별화·인센티브·인프라 등 제안...“10여개 기업과 투자 협의”

강진군이 폐교된 옛 성화대학 활성화를 위해 기업 유치를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강진군은 최근 서울에서 옛 성화대학 기업유치 전략 수립과 실행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업종별 기업유치를 위한 의견 수렴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 1일차는 기업 유치를 위한 강진군의 선결과제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고, 2일차는 이차전지, 콘텐츠 제작, 호텔 및 숙박, 스타트업, 스마트팜 관련 등 특화산업 분야와 관련된 업종의 임원진과 세미나를 진행했다.

워크숍에서 박기영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기업이 성화대로 올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비롯하여 운영비, R&D비용까지 지원하는 획기적인 인센티브 지급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정성훈 대한지리학회장은 “전남·광주의 전력을 흡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기업의 기능에 초점을 두고 기업을 마중

물 삼아 관련 산업을 유치하고 키워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진군 성전면에 있는 옛 성화대는 지난 1997년 개교 당시 320명으로 출발했으며, 2007년 1236명까지 증원되다가 2012년 폐교돼 현재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강진군은 폐교를 리모델링해 4차산업혁명 핵심 거점 기지를 구축하고자 작년 7월 전라남도가 주관한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330억원을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공간 혁신 및 4차산업 융복합 플랫폼 구축, 생활 인구 증가에 따른 지역 활성화를 위해 ‘천년문화 강진, 청년 글로벌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 기획자인 조지현 팍스농 전문위원은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기업 연계 외국인 교육, 드론 부품, 기업연계 위케이션, ESG사업과 연계한



옛 성화대 폐교 리모델링 조감도.

스마트팜 밸리 구축 등 다양한 전략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으며 조태용 대중소농어업협

력재단 본부장은 “ICT특화 기업 유치 및 인큐베이션을 위해 창업진흥원, 테크노파크 등 공공기관을

지사형태로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광식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산학교육혁신 연구원장은 “전남권 대학의 RISE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정주형 취창업 연계 협력 부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업종별 임원진 세미나에서는 주변 지역과 차별화된 인센티브 및 지원 인프라가 구축된다면 충분히 강진군에도 입주할 의향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지난 22일에는 문화 콘텐츠 관련 앵커기업이 옛 성화대 협장을 방문했으며, 입주 공간 구상 및 실질적 투자 협의를 통해 약 100억원 이상의 민간 투자 의향을 밝혔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민간 투자 의향을 밝힌 앵커기업을 비롯 10여 개가 넘는 민간기업과 실질적 투자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현재 진행중인 건축기획 용역이 마무리된 후 기본 및 실시계획을 거쳐 내년 하반기 착공을 통해 2026년에는 기업들의 입주를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 나주쌀 유럽 수출 물꼬 텃다...헝가리 시장 첫 진출

### ‘새청무’ 쌀 수출 기념 상차식

쌀알이 투명하고 단단해 밥을 지으면 찰기가 들고 윤기가 흐르며 식감이 쫄득한 나주쌀 새청무 유럽 시장 수출 물꼬가 텃다.

새청무쌀은 올해 오세아니아권 뉴질랜드에 이어 유럽 헝가리 수출이 처음으로 성사되면서 수출 규모 확대가 기대된다.

나주시는 지난 27일 나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나주쌀 ‘새청무’ 헝가리 첫 수출을 기념하는 상차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헝가리 첫 수출 결실은 올해 5월 운병대 나주시장이 호주-뉴질랜드 현지 방문을 통해 글로벌 유통업체 ‘더퍼스트인터내셔널’과 체결했던 ‘나주쌀 1000t 수출 업무협약’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나주쌀 수출 선적 물량은 뉴질랜드 3차 수출 계약 물량 20t에 헝가리 첫 수출 물량 20t을 더해 총 40t이다.

쌀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나주시는 고품질 쌀 생산과 내수 가격 안정화를 위해 물류비, 포장재비 등을 자체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수출용 쌀 포장재 디자인 개발, 국제식



운병대 나주시장이 지난 27일 유럽 헝가리 첫 수출길에 오른 ‘새청무’ 쌀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품박람회 참가, 수출 직불금 지급, 캐나다 농수산물 식품 마케팅 참여 지원 등 나주쌀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 정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첫 수출 결실을 이룬 관제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다”고 격려한 후 “나주쌀이 국내는 물론 세계 명품 브랜드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 강진 청자골 장미 다음달부터 본격 출하

### 전국 최고상품 정평...땅심화훼영농조합 조합원 40명 17.6ha 재배



강진군이 전국 최고 화훼 생산단지 조성을 목표로 화훼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강진 청자골 장미 생산 단지. (강진군 제공)

화훼산업의 침체와 가격 불안정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강진 청자골 장미 생산이 본격화된다.

강진군은 전국 최고 화훼 생산단지 조성을 목표로 화훼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온난한 기후 여건과 풍부한 일조량으로 화훼 재배의 최적지로 손꼽히고 ‘청자골 장미’의 경우 선명한 화색과 짙은 향기로 전국에서 최고의 상품으로 정평이 나 있다.

1995년에 설립된 강진 대표 화훼법인체인 땅심화훼영농조합은 현재 조합원 40명이 17.6ha의 면적에서 장미를 재배하고 있다.

전남에서 생산되는 장미의 69%를 차지한다.

올해 지역 화훼산업은 겨울철 일조량 부족으로 개화 상태 불량과 경기침체에 따른 꽃 소비 둔화, 여름철 고온 현상에 따른 생산량 저하 등 여러 악재 속에서도 청자골 장미 출하에 나선다.

지난 27일 기준 서울 양재동 화훼공판장 경매에서 장미 10송이 1단 기준으로 평균 가격이 7415원으로 전년도 95%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

조우철 땅심화훼영농조합법인 대표는 “장미 신선도 및 품질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생산 시설 현대화와 유통시설 확충으로 연중 고품질 청자골 장미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생화 직거래 판매 확대를 통해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 담양문화재단 ‘예술로 어울림’ 프로그램 활기

### 248명 정원에 396명 몰려 인기

(재)담양문화재단이 예코하이테크 담양산업단지 근로자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술로 어울림 사업인 ‘큰나무문화예술센터’를 본격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최·주관하는 이 사업은 지난 6월 전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돼 지난 19일부터 추진 중

이다.

이번 사업은 산단 근로자와 주민들의 수요 맞춤형으로 기획된 ‘내 생애 최고의 연주 레시피’ 등 11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예코하이테크 담양산단 내 복합문화센터, (주)광무포장, 담양군향촌노인종합복지관, 담양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다.

7월16일부터 진행된 참가자 모집에는 248명 정원에 396명의 신청자가 몰려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대도시와 광역단위로 추진되는 문예교육사업이 기초단위까지 확대될 가능성과 필요성을 보여준 것으로 수요 맞춤형 사업 설계를 통해 근로자와 주민의 충분한 참여를 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계기도 됐다.

담양문화재단 관계자는 “근로자와 지역민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프로그램이 순조롭게 시작됐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 문예교육으로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 향상에 꾀하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hd@kwangju.co.kr

## 농협함평군지부, 아침 밥 먹기 캠페인

### 지역기관과 쌀 소비 촉진 협약도

농협함평군지부는 최근 함평군내 유관기관인 함평경찰(서장 이후신), 함평소방서(서장 김광선), 함평교육지원청(교육장 박정애)과 함평쌀 소비촉진을 위한 업무협약과 함께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서 각 기관은 상호 우호 협력을 바탕으로 함평 미래 농업인재를 양성하고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함평 농축산물 소비 확대·농촌지역 치안·화재예방 활동 등을 위해 함께 힘을 합치기로 했다.

농협 함평군지부는 아침 밥 먹기 일환으로 함평

에 거주중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9월 2일부터 9월 29일 까지 SNS(인스타그램)를 통해 아침밥 먹기 이벤트도 벌인다.

아침밥을 먹는 사진이나, 동영상은 #함평아침밥먹기챌린지 #함평나비쌀 #농협함평군지부'로 올려주면 선착순 100명에게 함평나비쌀 4kg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준비 하고 있다.

이광재 농협함평군지부장은 “어려움에 직면한 농가들의 어려움을 공감해 주고 쌀 소비촉진 분위기 확산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감사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함평 쌀 소비가 활성화돼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 세얼굴

## “군민의 안위와 편의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배상진 장성경찰서장



“따뜻하고 친절할 경찰이 되도록 하겠습니 다.”

지난 26일 제82대 장성경찰서장으로 취임한 배상진(사진) 총경은 “군민 가까이에서 군민의 안위와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경찰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배상진 서장은 이날 오전 장성을 경찰 충훈단 참배 후 장성경찰서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배 서장은 “업무에 있어서는 담당하고 공정한 장성경찰이 되어줄 것을” 주문하면서 “군민에게는 따뜻하고 친절할 장성경찰이 되자”고 강조했다.

배상진 서장은 전주 출신으로 2000년 경찰간부후보(48기) 경위로 경찰에 입직해, 전북청 교통계장·여성청소년수사계장, 전남청 교통과장 등을 역임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 “노인·여성 등 약자에 따뜻한 치안 펼칠 것”

### 박흥원 장흥경찰서장



“유서깊은 문림의향의 고장인 장흥에서 군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소통하며 솔선수범 자세로 치안행정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부임한 박흥원(55·사진) 장흥경찰서장은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분야에 치안 손길이 미치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 서장은 또 “경찰조직의 구조조정으로 줄어든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의 어려운 아간운용체제

를 지역 자율방범대의 도움을 받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서장은 영암출신으로 광주기계공고를 졸업했다. 지난 1992년 순경으로 입문해 2016년 경정에 이르기까지 시험승진해 광주청 경비경호계장, 감사계장을 거쳤다. 올해 1월에 총경으로 승진 광주청 치안지도관을 역임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 “군민들께 안전 넘어 안심 드리겠습니다”

### 장승명 화순경찰서장



“안전을 넘어 안심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제83대 화순경찰서장에 취임한 장승명(사진) 총경은 “화순군민들께 안전을 넘어 안심을 드리기 위해 선제적으로 경찰 활동을 펼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 서장은 취임과 함께 이삼국 경찰도역을 참배하고, 화순노인회를 방문해 인사를 한후 협력단체 연합회와 간담회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장 서장은 “뜨겁고 단단하게 경찰의 소임을 다

하길 바란다”며 “군민에 안심을 드리는 경찰상을 정립하기 위해 직원들과 상시 소통을 통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평적 조직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 서장은 광주송일고를 졸업, 1995년 경찰대 11기로 경찰에 임용됐다. 고흥경찰서장, 전남청 교통과장, 광주청 여성청소년과장, 광주청 북부경찰서 정보과장 등을 역임했다. /화순=배재태 기자 by@kwangju.co.kr